



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일시	2021. 6. 26(토) 배포
담당부서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담당자	과장 윤현주, 사무관 홍지은 (044-200-2211, 2222)

다 쓴 전기차 배터리, 재사용 넘어 신산업으로 발돋움!

김부겸 국무총리, 제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 방문

-전기차 보급 확대, 이제는 사용후배터리 활용방안을 고민할 때 -
-배터리 강국인 우리나라가 사용후배터리 산업에서도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지원 -

□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26일(토) 오전, 제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(제주시 첨단로 241)를 방문했습니다.

* (참석)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, 원희룡 제주지사, 문대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, 오영훈 국회의원, 위성곤 국회의원,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

○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인프라 및 기술력 확보 등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

* (예시) 전기차 충전기,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(ESS), 태양광 가로등, 캠핑용 미니 충전기

○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제1호 사용후배터리 재사용센터인 제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 현장을 둘러보고,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□ 김 총리는 먼저 태성길 제주 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제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.

- 김 총리는 “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후배터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, 제주에서 먼저 나서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”며,
 - “사용후배터리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사용후배터리 산업에서도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”이라 말했습니다.
- 이후 김 총리는 사용후배터리를 보관하는 적재실과, 사용후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는 공정실을 살펴보았습니다.
- 정부는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튼튼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(가칭)「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」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,
 - 사용후배터리 분야를 포함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

※ (붙임) 제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 개요

□ 개요

- (목적) 제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회수·보관 및 성능평가(年 1,500대)
 - 기업 연계 재제조 배터리 실증연구 및 활용처 발굴*, 배터리 기반 지역 에너지 연관 기업 지원
 - * 전기차 충전기,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(ESS), 태양광 가로등, 캠핑용 미니 충전기 등
- (위치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1(첨단과학기술단지 내)
- (연 면적) 2,458m² (2개동)
- (배터리 회수현황) : 178대 (“21.6월 기준)

□ 추진경과

- (“17.4) 글로벌 EV폐배터리 재활용센터 구축사업 선정
- (“19.5) 제주 배터리산업 활성화 업무협약(제주도-한국전지산업협회-제주TP)
- (“19.6)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(산업부-환경부-제주도-경북도-현대차)
- (“19.6)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개소
- (“20.4)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공공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 선정
- (“20.5)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배터리반납및처리등에관한 조례 시행

